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주일
제32권 9호(나해) 2012.1.22

[묵상]



김기량 순교 현양비<제주교구, 제주도 조천읍 향덕리 소재>

예수님 공생활의 시작은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도울 협조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복음이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칭송되는 세상,
정의와 평화와 나눔이 살아있는 사회,
용서와 화합으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이해와 배려 속에 사랑이 머무는 가정,
하느님의 뜻을 따름이 행복임을 아는 나.

그 나라에서 살려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은 회개에서 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란 망상과 광신일 수밖에 없기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시작된 그 나라가
나를 통해 완성되도록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참된 믿음이 가능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듯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버리고 떠남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하느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그 나라에서 같이 살자고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櫃-

martinf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오후 2:00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예비자 교리반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병자영성체(1째주)	오전 10:00
	성령기도회	오후 8:00
금요일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짝수달 4째 토요일)	오후 6:00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2:00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00
	● 요셉회 ● 제대회 ● 울프레아	오후 1:00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가정의 날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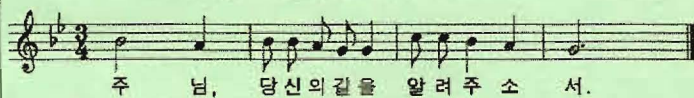
주임신부: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이원영 로즈마리, 이원재 베드로, 김현실 아녜스,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오진 베드로, 박영춘 안토니오, 박동욱 요셉, 유점이 베로니카, 고준희 제임스, 신대동 요아킴, 송기인 요셉, 심찬유 마리아, 소효균 요셉 & 소수연 안나, 양진호, 김시형 시릴로,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낙태된 불쌍한 영혼들 (생)김병도 프란치스코 몬시뇰, 김피터 & 김바비,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정열모 미카엘, 엄도니카, 엄크리스 벨라도, 엄유진 토마스, 김기숙 켈마, 신대철 알베르토, 송호창 요셉 & 송호민, 이정숙 루시아, 유명련 마리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나(Jonah) 3,1-5.10

화답송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7,29-3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 음 마르코(Mark) 1,14-20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오늘의 성가

	특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18	250	241
봉헌	270	269	268
성체	287	286	287
파전	218	240	20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과 성령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작용에 힘입어 인간의 말로 표현됩니다. 아드님의 사명과 성령의 사명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단일한 구원 경로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께서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강생하실 때에 작용하시는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서 그분을 이끄시는 성령, 제자들에게 약속되는 성령이십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알리는 과제에서 그리고 사도들의 설교에서 교회를 지탱하시고 감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저자들을 감도하시는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16).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이러한 성령론적 지평을 인식하면서, 성경과 관련하여 교회의 삶 안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지니는 중요성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요한 14,17)의 실제적인 작용 없이는, 주님의 말씀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래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머니(교회)의 품에서 생명의 양식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지극히 순수한 샘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의 성체의 몸 안에서 그리고 성경의 몸 안에서 우리에게 오듯이, 그 말씀은 오직 그 같은 성령을 통해서만 참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의 위대한 저술가들은 믿는 이들이 성경에 대하여 지녀야 하는 관계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보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성경이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풍부한 유익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예로니모 성인 역시, “우리는 성경을 감도하신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또한 대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경의 형성과 해석에서 동일한 성령께서 작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분께서 거룩한 계약들(구약과 신약 - 역자 주)의 말씀들을 창조하셨고, 바로 그분께서 그 의미를 알려 주신다.” 생 빅토르의 리샤르는, 거룩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가르침을 받은 “비둘기의 눈들”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신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인 전례 본문들에 들어 있는 성령과 성경의 관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언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계속>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오래전 보좌 신부 시절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말도 잘 할 수 없었고, 혼자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봉성체를 간 저에게 아주 힘들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꽤만 끼치는 저 자신이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늘 하느님과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모 있게 창조하셨다는데, 저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셨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 존재 이유이고 행복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십 년도 훨씬 지났지만, 고통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 그녀의 말이 지금도 가끔씩 제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인간의 삶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구원의 삶이 아닐까요? 아무리 잘 살더라도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

을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오늘 복음은 그 길을 알려줍니다. “때가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란 바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들과 가족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분명히 주저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런 사실이 오히려 평범한 인간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일 때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결국 저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잠시 길을 멈추고 마음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봅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변의 말씀과 사람, 일과 사건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어디로 어떻게 있습니까?

◆허영엽 마리아 신부/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채승희 에스터	박희자 마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김숙희 유소사제실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임진년 '설'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월23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미사후 세배(오전)와 떡국 나누기(오전/오후)
- 미사예물 봉헌 : 22일(주일)까지 사무실

◆ '과달루페 성모님' 은총속에 만나뵙고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3박4일간 멕시코시티 테페악에 계시는 과달루페 성모님을 만나뵙러 간 본당 성지순례단이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 은혜를 듬뿍 받고 잘 다녀왔습니다. "하느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 성지순례단 일동 -

◆ 본당 M.E. 셰어링(Sharing)

- 일시 : 오늘 주일(22일) 오후 6시, 강당
- 문의 : 정동호 하삼마오로 & 병옥 울리아 대표부부 ☎(310)780-9055

◆ 구역장 /반장 단합 모임

- 일시 : 1월27일(금) 오후 7시
- 장소 : 리틀도교 '만나' 레스토랑
- 문의 :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부장 ☎(310)808-5005

◆ '성경공부'(그룹반) 개설

- '마르코 복음' 기초('택시오 디비나'의 방법)
- 시작하는 날 : 수요일- 2월8일 오전 10시
금요일- 2월10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사무실앞 강의실 * 동반자(지도) : 본당 수녀님
* 2월5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달 2번째, 네번째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후
- 장소 : 성체 조배실 * 준비물 : 성경
- 문의 : 콕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9일(주일)까지 사무실, 성물부 김막달레나
- 봉헌미사 : 2월2일(목) 오후 7시30분

◆ 백삼위 골프회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
- 장소 : Skylink 골프코스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주일학교 소식 ~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본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핑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각종 모임시 2층 각교실의 테이블/의자를 옮겨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원위치로 돌려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탁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22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소고기국밥 \$3)
주일학교(7학년 크림파스타)
- 1월29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주일학교(6학년 카레라이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권태만	김병학	김성일	김양금	김영경
	김옥찬	김원호	나경흠	남성철	석순영	소성덕
	신경훈	신현화	오명섭	오세원	육근주	윤희동
	이남현	이민상	이우성	이인석	이일길	이일형
	이효세	정동호	정열모	주영석	최현찬	한금순
합계 : \$2,605						
미사헌금 : \$2,619						

성전헌금	강미순	권태만	김병학	김성일	김양금	김영경
	김원호	나경흠	남성철	석순영	소성덕	신경훈
	신현화	오세원	육근주	윤희동	이남현	이민상
	이우성	이인석	이일형	이효세	정동호	정열모
	한금순					
합계 : \$1,755						
감사헌금 : 이영호 배기엽 달력광고후원 : \$450(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박으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 2012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 1월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최소됩니다.)
- 신청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김본경 율리아 교장 ☎(310)713-2669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 오늘 주일(22일)부터 받습니다.**
* 등록금 : 첫째아이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아이 수업료 면제
- * 대상 : K~12, SAT II

◆ '십자가의 길' 기도문 공용 비치

- 지향에 따라 주제가 다른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공용(성당 비품)으로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 비치장소 : 성모상앞 돌의자 사물장, 사무실
- 주제 : ♡성경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 ♡김수환(목상)/장익(염음) 십자가의 길 ♡청소년이 바치는 십자가의 길 ♡베네딕도 16세 교황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남가주 소식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의 일정 : 1월~5월 매달 세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영화감상 및 나눔 피정)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성모기사회 북미주 지도)
 - 피정비 : 1인 \$20(김밥 제공)

◆ 성 아그네스 성당內 이냐시오 카페 오픈

- 커피 감정사인 LA 아그네스 성당 최대제 신부가 기도와 기술을 통합시킨 커피를 만들어 냅니다. 아그네스 성당에 오시면 핸드드립 커피를 드실 수 있고 로스팅 된 원두커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 아그네스성당 주소 : 1451 Dana St. LA(버몬트+ 아담스)
- * 문의 : (323)731-4433

구인 : Liquor Store Cashier(스탁 일을 겸하실 분)

주 40시간 근무(월링턴 + 임페리얼에 소재)

* 문의 : ☎(310)713-2534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변혜경 율리아나 920-5153 1/13(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4(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2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오창애 안나 974-2857 1/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2(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벨라멧다 213-718-0310 1/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송종두 요한 544-1267 1/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벼랑끝으로 오라

옛 중국의 선사 석상(石霜)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백 척이나 높은 작대기 끝에서 어떻게 하면 걸을 수가 있겠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백척이나 높은 작대기에 올라가 능히 앉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도 진리에 이른 것은 아니다. 백척간두에서 다시 한 발자국 나가보라. 그렇게 되면 시방 세계의 모든 진리를 보게 되리라.”

제가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매 순간이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백 척작대기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되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나를 이처럼 괴롭히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온갖 걱정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길한 망상 때문인데 어째서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미리 가불해서 앞당겨 근심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몇 날 며칠을 제 불안에 대한 정체를 직시해 보려 했습니다. 성녀 소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순간 단순히 살지 않는다면 인내심을 갖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잊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쉬지 않고 안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화 테레사의 말처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집착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미래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사리분별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골수인 금강경에는 이런 명구가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선승 황벽(黃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감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움이 없다. (前際無去 今際無住 後際無來)”

주님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못 박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마태 6,34)

제가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인 제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믿기보다 저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더 믿어 교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낱알이 다 세고 계신 아버지께서 제 날개를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백척간두에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은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일이며, 성난 파도를 잠재우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치마를 뒤집어쓰고 인당수의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는 길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아폴리네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 벼랑 끝으로 오라. / 그들이 대답했다. / 우린 두렵습니다. / 그가 다시 말했다. / 벼랑 끝으로 오라. / 그들이 왔다. /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과거를 걱정하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날개를 가진 거룩한 천사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작가

<서울주보 말씀의 이삭중에서>